

주 52시간 근무제가 임금 근로자의 건강 및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력·자녀·결혼·성별·직종에 따른 이질적 영향 분석

안지희*, 원소정**, 이시은***, 임채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15~24차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여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임금 근로자의 건강 및 생활 만족도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다. 2018년 7월을 기점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의무화된 300인 이상의 사업체 근로자를 처치군으로, 300인 미만인 사업체 근로자를 다섯 개의 대조군으로 설정한 후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DID)을 이용하여 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사전 분석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전체 표본에 있어서 근로시간이 실제로 단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건강 유지를 위하여 시간을 더 많이 소비하였고 주관적 건강 상태가 개선되었음을 보았다. 이후 학력, 자녀 유무, 결혼 여부, 성별, 직종별로 표본을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정책 시행으로 인해 가족 및 사회적 만족도가 상승했다. 반면 영유아를 양육하지 않는 집단은 건강 유지를 위한 시간 사용이 늘고 여가 및 가족 관계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미혼 집단은 달리 기혼 집단의 경우 건강 유지를 위한 시간을 늘렸다. 성별 간 분석에서는 성별에 관계 없이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이 증가하였으나 가족 관계 만족도의 경우는 남성만 증가한다는 특징을 보였다.

주요용어 : 노동시간, 건강, 생활 만족도, 주 52시간 근무제, 이중차분법

1. 서론

적절한 근로시간은 일과 생활의 균형 보존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OECD의 「근로자당 연평균 실제 근로시간」 통계에 따르면¹⁾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은 연평균 근로시간이 2,068시간으로 한국은 4 번째로 긴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다. Pega, F. et al.(2021)에 따르면 주 55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는 근로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근로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며 2018년 7월을 기점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다. 개인의 여가

*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석사과정(ahnjh0925@gmail.com)

**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석사과정(212ecg06@ewhain.net)

***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석사과정(alice_yi@naver.com)

****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석사과정(dlacotlf3697@ewhain.net)

1) OECD statistics. (2022)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worker. retrieved from <https://stats.oecd.org/Index.aspx> (2022. Sep 15)

시간 활용과 가족 및 사회적 관계는 근로자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요소이다. 통계청 「국민여가활동조사-국민여가실태」에 따르면²⁾ 근로자들이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로 부족한 시간을 꼽았다. 가족 및 사회 관계에 대한 만족도 역시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증진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와 가족 관계 및 사회적 관계 만족도를 살펴보는 것은 해당 정책의 목적이 달성되었는가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임금 근로자의 건강 및 생활 만족도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건강 관련 항목으로는 작년 대비 건강 상태인 주관적 건강 상태와 건강 유지를 위해 들이는 시간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생활 만족도는 여가시간, 가족 관계, 사회적 관계, 총 3가지 항목을 분석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8년 기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무의 대상이 된 종사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체는 처치군으로, 그 외 300인 미만인 사업체는 대조군으로 설정하였다. 대조군은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1~4, 5~9, 10~29, 30~99, 100~299인, 총 5개의 대조군으로 나누어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DID)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전체 표본에 대하여 정책 효과 분석을 시행한 후 구체적으로 학력, 자녀 유무, 결혼 여부, 성별, 직종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사전 분석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근로시간이 실제로 단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체 표본의 경우 종사자 수가 300인 이상인 처치군은 모든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근로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하였다. 세부 특징별 분석 결과 학력 유무, 유아 자녀 유무, 결혼 여부, 성별 모두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 직종별 분석 결과 처치군은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사무 종사자와 판매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와 단순 노무 종사자만이 근로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표본의 정책 효과를 먼저 분석한 결과 처치군은 작년 대비 건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건강 유지를 위해 들이는 시간은 증가하였다. 생활 만족도에 대한 분석은 여가시간, 가족 관계,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

특징별로 나눈 표본에 대한 정책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졸 미만의 처치군은 건강 유지를 위해 들이는 시간이 증가했지만,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하였다.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처치군은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처치군은 건강 유지를 위해 시간을 더 들인다고 응답하였고, 여가시간 만족도와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하였다. 반면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처치군은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결혼 여부에 따라서 분석한 결과 미혼인 경우 건강과 만족도에 대한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기혼인 처치군은 건강 유지를 위하여 시간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성은 건강 유지를 위한 시간을 더 증가시켰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작년 대비 건강 상태가 향상되

2) KOSIS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3&tblId=DT_113_STBL_1027132&conn_path=I2, (2022.09.15.)

었으며 건강 유지를 위해 들이는 시간이 증가한다고 응답하였지만, 생활 만족도에 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괏값이 나오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응답한 6개 직종에 대하여 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경우 여가시간 만족도 및 가족 관계 만족도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사무 종사자는 여가시간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종사자의 경우에는 작년 대비 건강 상태가 향상되었으며 건강 유지를 위해 들이는 시간이 증가하였지만 여가시간 만족도는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의 경우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하였지만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했다.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건강 유지를 위해 들이는 시간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단순 노무 종사자의 경우 여가시간, 사회적 관계 및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모두 감소했다.

II. 선행연구

본 논문은 아래의 선행 연구를 기본으로 하여 2018년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건강과 여가를 중심으로 한 근로자들의 생활 변화를 이중차분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 변화를 다룬 논의는 경제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에서 진행되었다. 우선 생활 만족도와 건강에 대한 영향을 보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근로시간이 주관적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혜림(2018)은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범주에 속할 경향을 보인다는 결과를 내생적 프로빗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신한열, 정완교(2019)는 복지패널 데이터의 이중차분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건강 검진을 받을 확률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고 동시에 고학력자와 청년층에서 흡연 확률도 증가시켰음을 보였다.

둘째, 근로시간 단축은 특정 집단의 생활과 여가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변화시켰다. 최태월, 임상호(2021)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 만족도를 성별, 연령, 학력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남성보다 여성의 개인 만족이 증대되었고 월 소득 300-400만원과 600만원 이상에서 여가 만족도가 다소 높아졌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최승묵(2020)은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의 여가시간이 늘어났고 근로자가 여가시간의 활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을 밝혔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주 52시간 근무제를 통하여 여가시간과 여가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근로시간의 감소 효과를 기혼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설명한 연구도 있다. 이진우, 금종예(2021)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가구 수준에서 맞벌이 부부의 초과근로시간 격차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승협, 손애리(2020)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초과 노동의 감소가 일생활 양립의 관점에서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전체 효과와 성별 효과를 제시하였다. 성별 간 일생활균형 만족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의 가사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여성의 만족도가 더 낮음

을 시사하였다.

한편 이중차분법을 사용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활 변화를 분석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오선정(2016)은 한국노동패널의 개인용 데이터를 사용하여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생활 만족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생활 만족도는 노동패널의 ‘전반적 생활 만족도’를 사용하였으나 단기적으로는 남녀 근로자의 생활 만족도를 향상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별뿐 아니라 기혼과 미혼, 유아 자녀 유무를 포함하여 여가 및 가족 내 만족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김대일(2021)은 처치그룹과 통제그룹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조군을 다섯 개로 세분화하였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나 모든 사업체에 동시에 적용된 2004년 40시간 근로제와는 다르게 사업체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위 연구에서는 2020년 이후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될 예정인 300인 미만 사업체들을 기업 규모별로 5개 그룹으로 세분화하였다.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고용 및 노동 생산성에서의 변화를 조사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심재선, 김호현(2020)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적용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단기적으로 고용이 증가했음을 보였으며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 규모가 300인에 가까운 사업체일수록 처치군과 유사한 특징을 가질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 범위에 순차적으로 포함되도록 300인 미만의 그룹을 사업체 규모에 따라 5개로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근로시간의 단축이 근로자의 생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결혼 여부와 영유아 자녀 유무 등으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근로시간 상한 제도가 일·가정 양립과 건강한 가정 유지를 위한 근거 중 하나가 되기를 기대한다.

III. 자료 및 식별전략

1. 분석자료와 변수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이하 ‘KLIPS’)의 일부를 변수로 활용하여 실증 분석했다. KLIPS 개인용 및 가정용 조사 데이터 중 15차년도부터 24차년도의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분석기간은 2012년부터 2021년으로 설정하였다.

실증 분석 시에 사용한 변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변수 활용 및 사용한 원변수명

	활용한 형태	원변수명
종속 변수	1년 전 대비 근로시간 감축	p1201
	1년 전 대비 주관적 건강 상태	p6102
	건강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	p6151
	주관적 생활 만족도	p6502 p6504 p6506
정책 관련 변수	사업체의 규모	p0405 p0406
	정책 시행 시기	year p9501
통제 변수	성별	p_sex
	나이	p_age
	나이의 제곱	
	교육 수준	p_edu
	근속 기간	p_job_begin
	거주지	p_region
	실질임금	p_wage
	사업체의 위치	p0311
	노조 가입 여부	p2504
	근로소득	h_inc_4
	총소득	h_inc_total
종속 변수 특성	학력	p_edu
	성별	p_sex
	직종별	p_ind2017
	결혼 여부	p_married
	유아 자녀 여부	h_kidage06

먼저 종속 변수로는 근로시간 감축과 관련된 변수와 건강 및 생활 만족도가 있다.

가장 먼저 근로시간 감축과 관련된 분석에 활용하기 위한 변수로 지난 조사 대비 사업체의 정규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감축되었는지 여부(p1201)를 더미 형식³⁾으로 응답한 문항을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임금 근로자의 건강 및 생활 만족도의 변화가 있는가에 대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해당 정책 시행으로 인해 실제로 근로시간이 감축했다는 사실이 우선적으로 입증될 때 정책 시행으로 인한 임금 근로자 건강 및 생활 만족도가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만약 사전 분석을 시행했을 때 정책 시행 시기를 기준으로 처치군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1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면 근로시간 감축이 높은 확률로 일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지난 조사 대비 근로시간이 감축되었다=1, 그렇지 않다=0

본 연구에서는 총 다섯 가지 종속 변수에 대한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다. 종속 변수들은 모두 더미 변수로 가공한 후에 사용했다.

건강과 관련된 변수는 주관적 건강 상태에 대한 더미 변수와 건강 유지를 위해 할애하는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1년 전 대비 현재 건강 상태를 범주형⁴⁾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문항이 설문지에 존재하므로 1년 전보다 건강이 좋다고 생각한 경우(훨씬 건강해 졌다, 조금 건강해 졌다)를 1로 그 외의 경우를 0으로 두었다. 다음으로 “평소 건강 유지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운동과 충분한 휴식, 수면 혹은 정기적 종합검진 중 한 가지를 주로 한다고 답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식사조절, 담배나 술을 절제, 보약이나 영양제 복용, 목욕 등을 자주하기, 아무것도 하지 않기)에 비하여 건강 유지를 위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1로, 나머지 경우에 대하여는 0으로 두고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생활 만족도와 관련된 종속 변수로는 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 사회적 친분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사용하였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다섯 가지로 구성된 범주 형식⁵⁾으로 답변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만족스럽다고 답변한 경우를 1로, 그 외의 경우를 0으로 두어 더미 변수로 만들어 활용했다.

실증 분석에 대한 식별전략인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DID)에 사용되는 세 가지 더미 변수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살피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하여 시행되었다. 따라서 이중차분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응답자의 응답시기가 2018년 7월을 기준으로 이전인지 혹은 이후인지와 응답자가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지가 중요하다. 개인용 자료 중 설문 작업을 진행한 연도 및 월에 대한 설문과 응답자의 사업체 규모에 대한 설문을 활용하여 이 두 더미 변수를 만들었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하여 정책이 시행된 2018년 7월 이후를 1로, 이전을 0으로 두었으며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을 경우를 1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두었다. 다만 사업체 규모에 대하여 범주형⁶⁾으로 응답한 경우는 각 범주의 산술적 평균을 사업체 규모라고 두고 더미 변수로 변환을 진행하였다.

사업체 규모를 기반으로 분류한 처치군과 대조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위한 실증 분석에서는 대조군을 총 다섯 개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대조군 분류 기준을 선행 연구 중 김대일(2021)을 참고하였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응답자들이 사업체 규모를 응답한 값 또는 각 카테고리의 평균값으로 정의한 후에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으로 총 다섯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대조군을 만들었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시에 몇몇 업종은 특례업종으로 분류하여 300인 이상 사업체에 해당하더라도 정책 시행을 면제해주었다.⁷⁾ 해당 업종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업종으로 분류되었을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특례업종을 제외한 채

4) 훨씬 건강해 졌다=1, 조금 건강해 졌다=2, 비슷하다=3, 나빠진 편이다=4, 훨씬 나빠졌다=5

5) 매우 만족스럽다=1, 만족스럽다=2, 보통이다=3,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4, 전혀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5

6) 1~4명, 5~9명, 10~29명, 30~49명, 50~69명, 70~99명, 100~299명, 100~299명, 500~999명, 1000명 이상

7) 특례업종으로 분류하여 제외한 업종번호: (ind2017기준) 491, 493, 494, 495, 501, 502, 511, 512, 521, 529, 861, 862, 863, 869

로 분석을 진행했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은 이중차분법을 식별전략으로 택하여 진행하였으며 정책 시행 시기를 고려하여 2018년 7월 이후 응답에 대하여 시간에 대한 더미를 1로 두었고, 그 이전에 대한 응답은 시간 더미를 0으로 두었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경우 그룹 더미를 1로 두었으며 대조군에 대해서는 사업체 규모 별로 다섯 개로 분류하여 총 다섯 번씩 분석을 시행하였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면제를 허가받은 특례업종은 모두 제외했다. 통제 변수로는 성별, 나이 및 나이의 제곱, 학력 수준, 근속 연수, 거주지, 실질임금⁸⁾, 사업체의 위치, 노조 가입 여부, 가정의 근로 소득과 총소득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임금 근로자의 특성별로 이질적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임금 근로자에 대한 분류를 진행하였다. 분류 시에 사용한 기준은 성별, 학력, 결혼 여부, 유아 자녀 양육 여부, 직종이다.

<표 2>는 <표 1>에서 제시한 원변수를 기준으로 분류한 각 특징별 임금 근로자의 관측치 개수와 비중을 정리해 본 것이다. 결혼 여부에 따른 분류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를 미혼으로 정의하였으며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거나 결혼을 했으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합쳐서 기혼으로

<표 2> 임금 근로자 분류 후 관측치 수 및 비중

	관측치 수	비중
학력: 고학력(4년제 대학 졸업 이상) 저학력(그 외)	20,607	0.32
	44,535	0.68
0~6세 자녀 양육 여부: 양육함 양육하지 않음	8,434	0.13
	56,714	0.87
결혼 여부: 미혼 유배우자와 무배우자	13,505	0.21
	51,643	0.79
성별: 남성 여성	38,289	0.59
	26,859	0.41
직종: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953	0.02
	13,347	0.24
	12,578	0.22
	6,757	0.12
	5,265	0.09
	286	0.01
	54	0.00
	7,725	0.14
	9,679	0.17

8) 명목임금에 대하여 당해 연도 CPI로 나눈 값을 사용했음.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보았다. 유아 자녀 양육 여부에 따른 분류에서는 0세부터 6세까지의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분류하였다.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각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가사노동의 양을 극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는 판단에서 선택한 분류 방식이다. 직종별 분류에서는 근로자라고 정의하기 애매하다고 생각되어 군인을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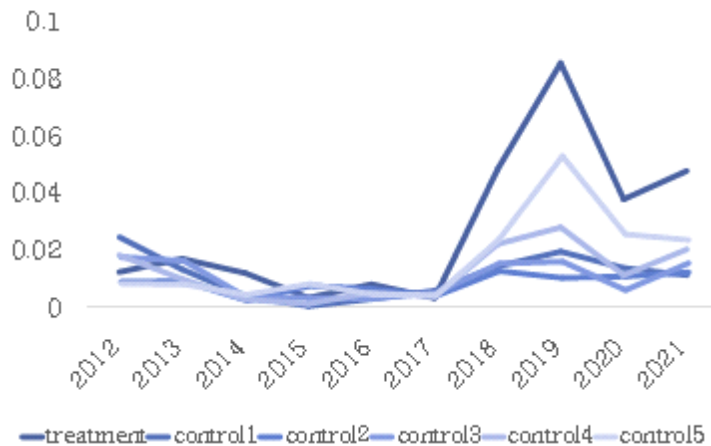
2. 기초 통계량

이중차분법을 사용한 분석에 앞서 주요 종속 변수들에 대한 연도별 평균값을 시계열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을 시행한 2018년을 기준으로 뚜렷한 변화를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면 식별전략을 이용한 분석 시에도 유의한 효과 발견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에서는 전체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요한 종속 변수에 대한 평균값을 표시한 그림이다. treatment는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인 처치군을 의미하며 control1부터 control5까지는 사업체 규모별로 분류한 대조군을 오름차순으로 배정한 것이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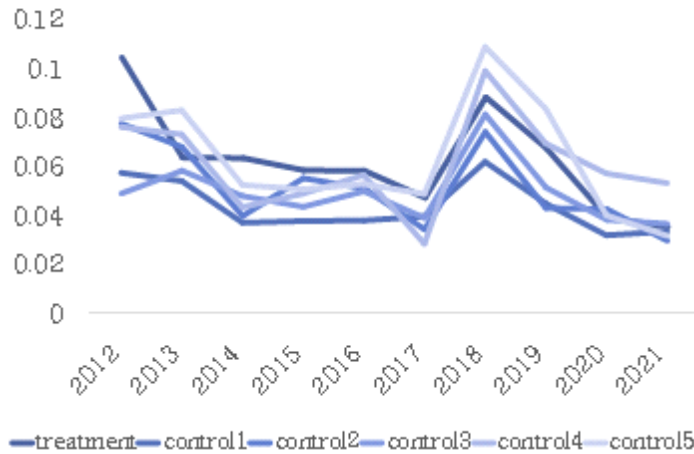
[그림 1]을 통해 가장 뚜렷한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처치군에서 지난 조사 대비 근로시간이 감축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으며 처치군을 제외한 대조군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처치군과 가장 비슷한 사업체 규모를 가진 control5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감축이 일어났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대조군에 비해 높은데 이는 앞으로 정책 시행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행동일 수 있다.

[그림 1] 근로시간 감축 여부에 대한 처치군과 대조군의 응답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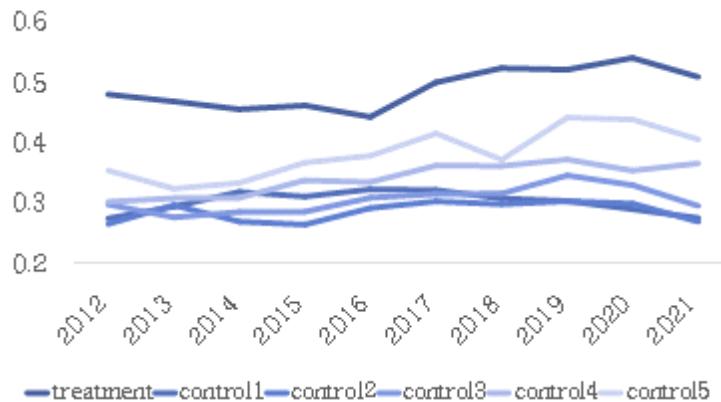


9) 예를 들면 control1은 1~4인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이루어진 대조군, control2는 5~9인 사업체 근무 근로자 대조군을 의미함.

[그림 2] 1년 전 대비 건강상태 만족 여부에 대한 처치군과 대조군의 응답 평균



[그림 3] 여가 생활 만족 여부에 대한 처치군과 대조군의 응답 평균



[그림 1]에 비해 [그림 2]와 [그림 3]의 경우에는 2018년을 기점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변화를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주요 특성을 통제하고 식별전략을 이용하여 본격적 분석을 하게 된다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확인할 수도 있다.

3. 실증 분석 식별전략: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DID)

실증 분석을 위해 사용하게 될 식별전략은 이중차분법으로 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효과를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특히 정책이 적용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같은 시점에서 비교함으로써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요인들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심재선·김호현, 2020).

본 연구에서 분석하게 될 목적식은 아래와 같다.

$$WHC_{it} = \alpha_0 + \alpha_1 D_i + \alpha_2 T_t + \alpha_3 D_i T_t + e_{it} \quad (1)$$

$$Y_{it} = \beta_0 + \beta_1 D_i + \beta_2 T_t + \beta_3 D_i T_t + \sum_{j=1} \beta_j X_{it} + u_{it} \quad (2)$$

(1) 식은 앞서 언급한 주 52시간 근무제의 실효성이 데이터 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 분석 시에 사용한 목적식이다. (2) 식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건강과 생활 만족도에 관한 종속 변수를 넣어 사용하게 된다.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였으므로 i 는 임금 근로자 개인에 대한 식별번호이고 t 는 응답한 연도이다. WHC(working hour cut)는 근로시간 감축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이며 Y 는 각각 분석 시에 살펴볼 종속 변수를 의미한다. 건강과 관련된 변수로는 지난 조사 대비 주관적 건강 상태와 건강을 위해 쓰는 시간 마련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가 있다. 생활 만족도를 나타내는 변수에는 여가 시간에 대한 만족 여부,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 여부,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 여부에 관한 더미 변수가 있다. D 는 사업체 규모가 300인 이상인 경우 1의 값을, 그 미만인 경우를 0으로 둔 더미 변수이므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구분한다. T 는 응답시기가 2018년 7월 이후인 경우를 1로, 그 이전인 경우를 0으로 둔 더미 변수로서 정책 시행 시기를 구분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가장 주요하게 살펴볼 추정치는 D 와 T 의 교차항의 계수인 α_3 와 β_3 이다. 2018년 7월 이후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임금 근로자의 변화를 의미하는 추정치이기 때문이다. 즉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 이후 시행 그룹에 나타난 변화를 추정해준다. 만약 α_3 가 1에 가까운 값을 가질수록 지난 조사 대비 근무시간이 실제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 두 식에서 각각 e_{it} 와 u_{it} 가 의미하는 것은 오차항이며 X 가 의미하는 것은 통제 변수 벡터로 (2) 식에서만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IV. 분석 결과

1. 주 52시간 근무제의 실효성 검증

주 52시간 근무제가 임금 근로자의 건강과 생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근로시간이 실제로 감축이 되었는지를 밝히는 일이다. 앞서 세운 이중차분 모형 (1) 식을 활용해 주 52시간 근무제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전체 표본과 학력, 영유아 자녀 유무, 결혼 여부, 성별, 직종에 따라 나는 특징별 표본에 대해 처치군인 300인 이상 사업체에 다니는 임금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는지를 보았다. 이에 대한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정책 효과를 나타내는 이중차

분 항의 계수를 나타낸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가졌을 때 정책에 의해 근로시간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3> 표본별 주 52시간 근무제 실효성 검정

	1~4인 규모	5~9인 규모	10~29인 규모	30~99인 규모	100~299인 규모
전체 표본	0.0489868*** (0.0062263)	0.0460854*** (0.0069189)	0.0499189*** (0.0065797)	0.0427482*** (0.0074271)	0.0171418** (0.0083979)
학력					
대졸 미만	0.0547243*** (0.0094073)	0.0534399*** (0.0104374)	0.0564469*** (0.0099021)	0.0469661*** (0.0111818)	0.0175185 (0.0130911)
대졸 이상	0.0475896*** (0.0086317)	0.0412389*** (0.0099549)	0.0462592*** (0.0089917)	0.0437125*** (0.009212)	0.0209756** (0.0099749)
유아유무					
없음	0.0471662*** (0.0074496)	0.0455724*** (0.0083415)	0.0484464*** (0.0078882)	0.0433066*** (0.0088394)	0.0119195 (0.0102389)
있음	0.0680562*** (0.016409)	0.0600133*** (0.0134481)	0.074204*** (0.0152016)	0.0512524*** (0.0181483)	0.0326848** (0.0165906)
결혼여부					
미혼	0.0342212** (0.0139935)	0.0318313** (0.0152781)	0.0297392* (0.0155308)	0.0191343 (0.0161566)	0.0167241 (0.0160067)
기혼	0.0507967*** (0.0070519)	0.0479631*** (0.0079411)	0.0520794*** (0.0073374)	0.0482369*** (0.0084082)	0.0156925 (0.0097185)
성별					
남성	0.0566715*** (0.0078832)	0.0562791*** (0.0085649)	0.0572129*** (0.0081943)	0.0514329*** (0.0092087)	0.0187381* (0.0100093)
여성	0.0230341*** (0.0083898)	0.0133845 (0.0098567)	0.0251128*** (0.0090309)	0.0148962 (0.0110221)	0.0098929 (0.0145022)
직종					
관리자	0.0538479 (0.0492807)	0.0629038 (0.0493106)	0.0351342 (0.0469377)	0.049251 (0.0452418)	0.0312809 (0.0291414)
전문가 및 관련	0.0631786*** (0.0124201)	0.0348133** (0.013916)	0.0459494*** (0.0119533)	0.051766*** (0.012775)	0.03101** (0.0141754)
사무 종사자	0.0276683*** (0.0103227)	0.0262843** (0.0116349)	0.0368482*** (0.0115335)	0.026356** (0.0127944)	0.0146259 (0.0117546)
서비스 종사자	0.0198604 (0.0320611)	0.0447851 (0.0423684)	0.0483128 (0.0384161)	0.0303095 (0.0390996)	0.074374 (0.0527273)
판매 종사자	0.0366032** (0.0182224)	0.0420533* (0.0221822)	0.035159** (0.0154953)	0.0356541** (0.0146749)	-0.0103546 (0.0393963)
농림· 어업	0.0639737 (0.0439541)	(omitted)	(omitted)	(omitted)	(omitted)
기능원 및 관련 기능	0.1392143*** (0.032078)	0.1493351*** (0.0350038)	0.1480495*** (0.0342756)	0.1599118*** (0.0344394)	0.087689** (0.037566)
장치· 기계 조작	0.0445899** (0.018075)	0.0624637*** (0.0164824)	0.0547634*** (0.0182818)	0.0228024 (0.0205184)	-0.0162151 (0.0217463)
단순 노무	0.1126738** (0.0469324)	0.0870407 (0.0576602)	0.0988172** (0.0484577)	0.1045314* (0.0559353)	0.0837196 (0.070969)

표본: 대조군 구간과 표본별로 표본의 크기가 상이함. 부록에 수록.

() 안은 강건 표준오차를 나타냄

*p<0.1, **p<0.05, ***p<0.01

<표 3>에 따르면 전체 표본에서는 모든 대조군에 대해 95%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이므로 처치군인 300인 이상의 사업체에 근무하는 임금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징별로 분류한 표본 대부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가진다. 먼저 학력별로 분류한 표본은 대졸 미만과 대졸 이상의 집단 모두 99인 이하의 사업체로 구분된 4개의 대조군에 대해 99%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가지므로 정책 시행으로 인해 처치군의 근로시간이 줄었다고 볼 수 있다.

유아 자녀 유무별로 나눈 표본을 보면 유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00~299인 규모의 대조군을 제외한 4개의 대조군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가지고 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대조군에 대해 처치군의 근로시간이 줄었음을 확인하였다.

결혼 여부에 따라 나눈 표본의 경우 미혼은 29인 이하인 3개의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그리고 기혼은 99인 규모 이하인 4개의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처치군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성별로 분류한 표본을 보면 남성은 5개의 모든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처치군의 근로시간이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여성의 경우 1~4인 규모와 10~29인 규모인 사업체에 해당하는 대조군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추정치를 보이므로 확실하게 처치군의 근로시간이 줄었다고 할 수 없다. 통계청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고용형태별통계 임금 및 근로시간¹⁰⁾에 따르면 2018년 남성의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은 11.9시간, 여성은 6.5시간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최대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상한선이 정해질 경우에 실제적인 영향을 받는 집단은 남성일 확률이 높다.

앞선 표본과는 다르게 주 52시간 근무제의 근로시간에 대한 정책 효과는 직종별로 상이하다. 관리자, 서비스 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의 경우 모든 대조군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값이 도출되었다. 이 세 가지 직종에서는 정책 시행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감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반대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는 모든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근로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사무 종사자와 판매 종사자는 100~299인 규모의 대조군을 제외한 4개의 대조군에 대해서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와 단순 노무 종사자는 각각 다른 3개의 대조군에 대해서 근로시간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줄어드는지를 고정 효과를 포함한 이중차분 회귀를 통해 검정하였고 99%, 95%, 90%의 유의 수준에 위 통계치에 대한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표 3>에 따라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확인된 표본을 중심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임금 근로자의 건강과 생활 만족도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어떤 효과를 미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10) 표본은 정규근로자로 실증 분석 시에 사용한 표본과는 다른 표본임.

2. 전체 표본에 대한 정책 효과 분석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처치군의 건강과 생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래 <표 4>로 정리하였다.

<표 4> 전체 표본에 대한 건강과 생활 만족도

전체 표본	작년 대비 건강 상태	건강 유지를 위해 들이는 시간	여가시간 (만족도)	가족 관계 (만족도)	사회적 관계 (만족도)
1~4인 규모 [124,687]	-0.0002382 (0.0085267)	0.0052492 (0.0150539)	0.0079083 (0.0168628)	-0.004342 (0.0147263)	-0.0213062 (0.0164516)
5~9인 규모 [25,600]	0.0167319* (0.0094518)	0.0321065* (0.0178935)	0.0292263 (0.0193753)	0.0219888 (0.017699)	0.0186818 (0.0190859)
10~29인 규모 [19,282]	0.0068662 (0.0090692)	0.038929** (0.0172999)	0.0191653 (0.0191609)	-0.0114718 (0.0167433)	0.0033246 (0.0187472)
30~99인 규모 [16,440]	-0.0101612 (0.0098517)	0.0065143 (0.0185011)	-0.0067886 (0.020402)	-0.0067528 (0.0177251)	-0.0205005 (0.0199546)
100~299인 규모 [13,380]	0.0021125 (0.0107228)	0.0463525** (0.0203932)	-0.0010331 (0.0213996)	0.018459 (0.0184381)	0.0178117 (0.0207115)

() 안은 강건 표준오차를 나타냄

[] 안은 표본의 크기를 나타냄

*p<0.1, **p<0.05, ***p<0.01

가. 건강

먼저 건강과 관련된 변수를 살펴보면 전체 표본에서는 작년 대비 건강 상태와 건강 유지를 위해 들이는 시간에서 유의미한 추정치가 도출되었다. 작년 대비 건강 상태에서는 5~9인 규모의 대조군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고 건강 유지를 위해 들인 시간은 5~9인, 10~29인, 100~299인 규모의 대조군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가진다.

그리고 작년 대비 건강 상태와 건강 유지를 위해 들이는 시간의 추정치는 모두 양의 부호를 가진다. 이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 근로자는 대조군에 비해 작년보다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고 응답한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처치군이 대조군보다 건강 유지를 위해 시간을 더 들인다고 볼 수 있다. 앞 단계에서 검정한 근로시간 감축에 대한 추정치와 연관 지어 보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감소하였고 줄어든 만큼 늘어난 여가시간을 건강 유지를 위한 실천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생활 만족도

건강 분야와는 달리 생활 만족도 분야에 속하는 여가시간 만족도와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만족도에 대한 추정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즉 주 52시간 근무제는 전체 표본으로 따져 보았을 때 생활 만족도 보다도 건강 유지를 위해 시간 사용을 늘리는 것에 정책 효과가 더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3. 특징별로 나눈 표본에 대한 정책 효과 분석

가. 학력

1) 건강

먼저 <표 5-1>을 보면 대졸 미만 집단에서 작년 대비 건강 상태는 유의미한 추정치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건강 유지를 위해 들이는 시간은 10~29인과 100~299인 규모의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진다. 따라서 처치군이 대조군보다 건강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함을 알 수 있다. 대졸 미만의 집단과는 반대로 <표 5-2>를 보면 대졸 이상의 집단은 모든 건강과 관련된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근로시간 감소에 관한 사전 분석 시에는 대졸 미만 집단에서 100~299인 규모의 대조군에 비해 처치군의 근로시간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았다. 하지만 <표 5-1>의 2열 5행을 보면 100~299인 대조군에 비해 처치군의 건강 유지를 위해 들이는 시간이 유의하게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졸 미만 집단에서 처치군과 가장 유사한 특징을 가진 대조군과의 분석에서 유의미한 근로시간의 차이가 없으나 300인 이상 사업체 근무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2) 생활 만족도

<표 5-1>에 따르면 대졸 미만 집단은 여가시간과 가족 관계 만족도의 추정치가 유의미하지 않다. 대신 처치군의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1~4인 규모의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대졸 이상 집단의 만족도 분야 중 가족 관계와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 또한 유의미한 추정치를 가지지 않는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시행으로 대졸 이상 집단의 처치군은 5~9인, 10~29인 규모의 대조군에 비해 여가시간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정책 효과를 정리하면 대졸 미만 집단에 대해서는 생활 만족도 지표보다 건강 지표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건강 유지를 위해 시간을 더 사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대졸 이상 집단은 건강 지표보다 생활 만족도 지표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여가시간의 만족도가 상승하였다.

<표 5-1> 학력별 건강과 생활 만족도 - 대졸 미만

대졸 미만	작년 대비 건강 상태	건강 유지를 위해 들어는 시간	여가시간 (만족도)	가족 관계 (만족도)	사회적 관계 (만족도)
1~4인 규모 [17,541]	-0.014164 (0.0102965)	0.027040 (0.0208256)	-0.0095681 (0.0230501)	-0.0163387 (0.0214106)	-0.0422656* (0.0232066)
5~9인 규모 [12,697]	0.005085 (0.0111076)	0.035363 (0.0230434)	0.007077 (0.0251255)	0.028549 (0.0235485)	0.015707 (0.0252893)
10~29인 규모 [11,975]	-0.0048345 (0.0106155)	0.0617821*** 0.0228593	-0.0090197 (0.0252793)	-0.0180244 (0.0233754)	-0.0226626 (0.0251764)
30~99인 규모 [9,746]	-0.0135238 (0.0116393)	0.011346 (0.0243686)	-0.0271199 (0.0267069)	-0.0078498 (0.0243405)	-0.0371523 (0.0265819)
100~299인 규모 [7,144]	-0.0074679 (0.0140079)	0.0610488** (0.0280356)	0.016941 (0.0282537)	0.019037 (0.0266125)	0.023646 (0.028391)

() 안은 강건 표준오차를 나타냄

[] 안은 표본의 크기를 나타냄

*p<0.1, **p<0.05, ***p<0.01

<표 5-2> 학력별 건강과 생활 만족도 - 대졸 이상

대졸이상	작년 대비 건강 상태	건강 유지를 위해 들어는 시간	여가시간 (만족도)	가족 관계 (만족도)	사회적 관계 (만족도)
1~4인 규모 [9,427]	0.018796 (0.0144873)	-0.019622 (0.0222865)	0.024764 (0.0255426)	0.013251 (0.0203063)	0.004904 (0.0236928)
5~9인 규모 [6,128]	0.025830 (0.0181683)	0.037934 (0.0328078)	0.0719611** (.0364687)	0.003796 (0.0316412)	0.014408 (0.0329411)
10~29인 규모 [6,892]	0.025830 (0.0181683)	0.037934 (0.0328078)	0.0719611** (0.0364687)	0.003796 (0.0316412)	0.014408 (0.0329411)
30~99인 규모 [6,605]	-0.0054294 (0.0175429)	-0.0047479 (0.0296481)	0.014355 (0.0332993)	-0.0035537 (0.027157)	0.004884 (0.0317664)
100~299인 규모 [6,215]	0.013593 (0.0160607)	0.032382 (0.0299658)	-0.0204992 (0.0324592)	0.019951 (0.0252311)	0.013124 (0.0306814)

() 안은 강건 표준오차를 나타냄

[] 안은 표본의 크기를 나타냄

*p<0.1, **p<0.05, ***p<0.01

나. 자녀 유무

1) 건강

<표 6-1>와 <표 6-2>는 주 52시간 시행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이 개인의 주관적 건강 및 개인이 건강에 들이는 시간에 대한 영향을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지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것이다. 주관적 건강 상태에 대하여 만 6세 미만 자녀 양육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값이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건강에 들이는 시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건강 유지를 위해 들이는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5~9인, 10~29인, 100~299인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처치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건강 유지를 위해 시간을 더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6세 미만의 유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집단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으로 인해 늘어난 잉여 시간을 육아가 아닌 본인의 건강을 위해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집단의 경우 건강 유지를 위해 들이는 시간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실제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효과로서 확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6세 미만의 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육아에 시간을 더 사용하게 되므로 개인의 건강에 대한 노력은 크게 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2) 생활 만족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가시간 사용에 대한 생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에 아동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6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 10~29인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처치군의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10% 통계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집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유아 자녀가 없는 집단에 비해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로 미루어 보아 6세 미만의 유아 자녀를 가진 경우 육아로 인하여 근로시간 단축이 여가시간의 증가로 직결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여가시간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육아로 인하여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는 효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 및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 분석 결과 6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집단의 처치군은 5~9인 대조군에 비해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100~299인 대조군에 비해 처치군에서 가족 관계 및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표 6-1> 6세 미만 자녀 여부에 따른 건강과 생활 만족도 - 6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

6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	작년 대비 건강 상태	건강 유지를 위해 들이는 시간	여가시간 (만족도)	가족 관계 (만족도)	사회적 관계 (만족도)
1~4인 규모 [23,404]	-0.0059261 (0.0093797)	0.0153572 (0.0173827)	0.0084628 (0.0186432)	-0.0040908 (0.0167185)	-0.0122678 (0.0186805)
5~9인 규모 [16,173]	0.0109734 (0.0103643)	0.0347253** (0.0201263)	0.0357849* (0.0211095)	0.0337078* (0.0196604)	0.0287737 (0.0214467)
10~29인 규모 [15,926]	0.0061764 (0.0100433)	0.048899*** (0.0198513)	0.025993 (0.02097)	-0.0074067 (0.0190098)	0.0126566 (0.0212801)
30~99인 규모 [13,636]	-0.016969 (0.011035)	0.0059395 (0.0211605)	0.0047524 (0.0225692)	-0.0096645 (0.0200366)	-0.0105306 (0.0225756)
100~299인 규모 [10,763]	-0.003172 (0.0122596)	0.065112*** (0.023543)	0.0038006 (0.0242963)	0.0068733 (0.0213068)	0.0096628 (0.0235619)

() 안은 강건 표준오차를 나타냄

[] 안은 표본의 크기를 나타냄

*p<0.1, **p<0.05, ***p<0.01

<표 6-2> 6세 미만 자녀 여부에 따른 건강과 생활 만족도 -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작년 대비 건강 상태	건강 유지를 위해 들이는 시간	여가시간 (만족도)	가족 관계 (만족도)	사회적 관계 (만족도)
1~4인 규모 [3567]	0.0000172 (0.0242947)	-0.0578323 (0.0391106)	0.0347863 (0.0431622)	0.0238726 (0.0353294)	0.0034807 (0.0403757)
5~9인 규모 [2655]	0.037227 (0.031348)	0.0218301 (0.0509334)	0.0297563 (0.0556981)	-0.0262726 (0.048081)	0.020992 (0.0519095)
10~29인 규모 [2941]	-0.0105754 (0.0266859)	-0.0399015 (0.0454884)	-0.0050098 (0.0553099)	-0.0477405 (0.0405748)	-0.0273344 (0.0490746)
30~99인 규모 [2,715]	0.0181274 (0.0261451)	0.0277115 (0.0503602)	-0.0872668 (0.0538145)	-0.0078831 (0.0458715)	-0.0608417 (0.0531235)
100~299인 규모 [2,596]	0.0220612 (0.0242227)	-0.0146631 (0.0489087)	-0.0118512 (0.0505981)	0.074116* (0.0408051)	0.078444* (0.0451285)

다. 결혼 여부

1) 건강

<표 7-1>과 <표 7-2>의 1열과 2열은 결혼 여부에 따른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결혼을 하지 않은 집단의 경우 작년과 비교한 주관적 건강에 대한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 기업 규모가 30~99인인 대조군에 비해 처치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작년 대비 건강한 것 같다고 응답하였으나 기업 규모가 100~299인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처치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작년 대비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결혼을 한 집단은 작년 대비 건강하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미혼 집단에 비해 더 컸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들은 아니었다.

건강 유지를 위해 들이는 시간에 대한 분석 결과 결혼을 한 집단의 경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경향을 보였다. 5~9인, 10~29인, 100~299인 대조군에 대하여 처치군은 건강 유지를 위해 들이는 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고 응답을 하였다.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치군은 모든 대조군에 비해 건강 유지를 위해 들이는 시간이 더 크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전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기혼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에 따라 건강 유지를 위해 시간을 사용하려는 경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리하자면 결혼을 한 집단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감축된 근로시간을 개인 건강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주관적 건강 상태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의 감축이 개인의 건강 유지를 위한 시간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작년 대비 건강 상태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2) 생활 만족도

<표 7-1>과 <표 7-2>의 3~5열은 결혼 여부에 따른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이 여가시간, 가족 관계,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결혼을 한 집단은 결혼을 하지 않은 집단보다 여가 만족도 및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했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결혼을 하지 않은 집단의 처치군은 대조군에 비해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더 크게 증가했다고 나타났다. 하지만 생활 만족도에 관한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 여부에 따른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표 7-1> 결혼 여부에 따른 건강과 생활 만족도 - 미혼

미혼	작년 대비 건강 상태	건강 유지를 위해 들이는 시간	여가시간 (만족도)	가족 관계 (만족도)	사회적 관계 (만족도)
1~4인 규모 [5,020]	-0.0299994 (0.021405)	0.0171023 (0.0450265)	-0.0543629 (0.0392704)	0.006616 (0.0434213)	0.016166 (0.0432031)
5~9인 규모 [4,365]	0.0107202 (0.021543)	0.032665 (0.0488219)	0.0318564 (0.0424174)	0.0437305 (0.0475096)	0.0067701 (0.0464254)
10~29인 규모 [3,986]	0.0094946 (0.0221314)	0.0101499 (0.0496742)	0.0518944 (0.0435431)	0.0355405 (0.0484562)	0.0167526 (0.0454677)
30~99인 규모 [3,279]	0.051617** (0.026875)	0.0213931 (0.0522152)	0.0026484 (0.0515518)	0.0339764 (0.0550463)	-0.005937 (0.0547201)
100~299인 규모 [2,707]	-0.04214* (0.025239)	0.0268115 (0.054539)	0.0509418 (0.0510254)	0.0309746 (0.0517582)	0.0369314 (0.056449)

() 안은 강건 표준오차를 나타냄

[] 안은 표본의 크기를 나타냄

*p<0.1, **p<0.05, ***p<0.01

<표 7-2> 결혼 여부에 따른 건강과 생활 만족도 - 기혼

기혼	작년 대비 건강 상태	건강 유지를 위해 들이는 시간	여가시간 (만족도)	가족 관계 (만족도)	사회적 관계 (만족도)
1~4인 규모 [21,951]	0.0035234 (0.0092272)	0.0053343 (0.016383)	0.0046526 (0.0187389)	0.0067421 (0.0158287)	-0.0226978 (0.017839)
5~9인 규모 [14,463]	0.0174548 (0.0107766)	0.0402881** (0.0199085)	0.0277671 (0.0222861)	0.0188029 (0.0198153)	0.016897 (0.0218686)
10~29인 규모 [14,881]	0.0030433 (0.009873)	0.0453874** (0.0188793)	0.0005001 (0.0215406)	0.0174132 (0.0181459)	0.0072274 (0.0209326)
30~99인 규모 [13,072]	0.0042301 (0.0105747)	0.0053816 (0.0204094)	-0.0227089 (0.0221709)	0.0191367 (0.0186516)	0.0284642 (0.0215674)
100~299인 규모 [10,652]	0.0079469 (0.0119974)	.0470474** (0.0224854)	0.0015867 (0.023665)	0.0276786 (0.0196685)	0.0247455 (0.0222371)

() 안은 강건 표준오차를 나타냄

[] 안은 표본의 크기를 나타냄

*p<0.1, **p<0.05, ***p<0.01

라. 성별

1) 건강

<표 8-1>과 <표 8-2>은 성별에 따른 주 52시간 근무제의 정책 효과를 정리한 표이다. 첫 번째로 남성은 <표 8-1>에 따르면 건강 유지를 위해 들이는 시간에서 유의미한 값을 보인다.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에 다니는 남성 임금 근로자와 5~9인, 10~29인, 100~299인 규모인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처치군에 해당하는 남성은 본 정책 시행 이후에 건강을 위해 시간을 더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처치군에서 모든 대조군에 비해 근로시간이 감소하였으므로 정책 시행 이후 잉여 시간을 건강 유지에 더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여성 또한 건강 분야의 두 가지 지표에서 유의미한 추정치를 가진다. 5~9인, 10~29인 규모의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여성은 정책 시행 이후에 작년 대비 건강 상태가 더 좋아졌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10~29인 규모의 대조군에 비해 처치군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는데 <표 8-2>의 건강 유지를 위해 들이는 시간이 증가했음을 연관 지어 보면 잉여 시간을 건강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생활 만족도

<표 8-1>에 따르면 남성은 만족도 지표 중 유일하게 가족 관계 만족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가진다. 5~9인 규모의 대조군에 비해 남성 처치군은 가족 관계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표 8-2>에 따르면 여성 처치군의 생활 만족도 지표에서는 괄목할만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8-1> 성별에 따른 건강과 생활 만족도 - 남성

남성	작년 대비 건강 상태	건강 유지를 위해 들이는 시간	여가시간 (만족도)	가족 관계 (만족도)	사회적 관계 (만족도)
1~4인 규모 [15,179]	-0.0075968 (0.0107658)	0.008601 (0.0182969)	0.0089491 (0.0203418)	-0.0110386 (0.0179058)	-0.0122365 (0.0201445)
5~9인 규모 [11,547]	0.0102002 (0.011932)	0.0363436* (0.0217215)	0.0352562 (0.0233793)	0.0415027* (0.0219933)	0.0359526 (0.0232843)
10~29인 규모 [12,208]	0.0022984 (0.0113706)	0.033462* (0.0201855)	0.0295721 (0.0226926)	-0.0175278 (0.0197081)	-0.0045784 (0.0224526)
30~99인 규모 [11,084]	-0.0122804 (0.0117794)	-0.0009395 (0.0213307)	-0.0164998 (0.0238572)	0.0027985 (0.0215277)	-0.0134206 (0.0233932)
100~299인 규모 [9,659]	0.0069154 (0.0125361)	0.0589033** (0.0232385)	0.0117764 (0.0243622)	0.0246628 (0.0214656)	0.0295716 (0.0236597)

() 안은 강건 표준오차를 나타냄

[] 안은 표본의 크기를 나타냄

*p<0.1, **p<0.05, ***p<0.01

<표 8-2> 성별에 따른 건강과 생활 만족도 - 여성

여성	작년 대비 건강 상태	건강 유지를 위해 들이는 시간	여가시간 (만족도)	가족 관계 (만족도)	사회적 관계 (만족도)
1~4인 규모 [11,792]	0.0181546 (.0138962)	0.0056977 (0.0288991)	-0.0044319 (0.0327499)	0.0009506 (0.0290489)	-0.0352616 (0.0315631)
5~9인 규모 [7,281]	0.0343774** (.0155029)	0.0279702 (0.0335647)	0.0172176 (0.0375856)	-0.0108513 (0.0331217)	-0.0034171 (0.0365402)
10~29인 규모 [6,659]	0.0263014* (0.0148366)	0.0552014* (0.0335928)	-0.0031734 (0.0374927)	-0.0065163 (0.0336111)	0.0117067 (0.0362972)
30~99인 규모 [5,267]	0.000239 (0.0177973)	0.0231853 (0.0367393)	0.0041485 (0.0401635)	-0.0241453 (0.0335183)	-0.0194491 (0.0396812)
100~299인 규모 [3,700]	-0.0083317 (0.0198049)	0.0112426 (0.0424322)	-0.0478216 (0.0441855)	0.0042749 (0.0366098)	-0.0131276 (0.0432261)

() 안은 강건 표준오차를 나타냄

[] 안은 표본의 크기를 나타냄

*p<0.1, **p<0.05, ***p<0.01

마. 직종

1) 건강

직종에 따른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근로시간 감축이 유의하게 나타난 직종 6개(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판매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정리한 결과이다. 작년 대비 건강 상태를 분석했을 때, 판매 종사자만이 작년 대비 건강하다고 응답했다. 사업체 규모 5~9인 대조군에 비해 처치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작년보다 건강한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건강 유지를 위해 들이는 시간에 대한 분석 결과 판매 종사자 및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집단이 근로시간 감축 후 건강 유지를 위한 시간을 더 증가시킨 것으로 응답했다. 판매 종사자의 경우 처치군은 1~4인, 10~29인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건강 유지를 위하여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고 응답했다.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경우 10~29인, 100~299인 대조군과 비교하여 건강 유지를 위하여 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하였다.

결과적으로 다른 직종과 비교하여 판매 종사자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하여 건강 유지를 위해 들이는 시간을 가장 많이 증가시켰고 그 결과 스스로 작년 대비 더 건강하다고 응답하였다.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건강 유지를 위해 들이는 시간은 증가하였으나 작년 대비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2) 생활 만족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여가시간 만족도의 경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의 만족도가 증가한 반면 판매 종사자 및 단순 노무 종사자의 여가시간 만족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처치군은 모든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여가시간 만족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사업체 규모 5~9인 대조군과 대비하였을 때 처치군은 여가시간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사무 종사자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여가시간 만족도가 증가하였고 특히 10~29인 대조군에 대하여 여가시간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하였다.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여가시간 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 중 100~299인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여가시간 만족도가 10% 유의 수준에서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판매 종사자의 경우에는 1~4인, 5~9인, 10~29인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처치군의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단순 노무 종사자의 경우 10~29인, 30~99인, 100인~299인 대조군에 비해 처치군의 여가시간 만족도가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정책 시행으로 인해

여가시간 만족도가 감소한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정책 시행으로 인해 실질임금 감소현상이 발생하여 여가시간 만족도 감소로 이어졌을 수 있을 것이다.

가족 관계 만족도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집단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변화가 나타났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경우 사업체 규모 100~299인 대조군에 비해 처치군의 가족 관계 만족도가 증가했다. 반면 단순 노무 종사자의 경우 10~29인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처치군의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단순 노무 종사자에 대하여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영향을 확인했다.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의 경우 1~4인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단순 노무 종사자의 경우 처치군은 1~4인, 10~29인 대조군에 비해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응답하였다.

<표 9-1> 직종에 따른 건강과 생활 만족도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작년 대비 건강 상태	건강 유지를 위해 들이는 시간	여가시간 (만족도)	가족 관계 (만족도)	사회적 관계 (만족도)
1~4인 규모 [5,270]	0.014338 (0.0193739)	0.031918 (0.0317881)	0.042762 (0.0349757)	0.009582 (0.0279075)	-0.005210 (0.0322416)
5~9인 규모 [3,976]	0.021403 (0.0217588)	0.043722 (0.0408904)	0.0861135* (0.0452015)	0.013531 (0.036024)	0.031238 (0.041049)
10~29인 규모 [4,413]	0.006006 (0.0195702)	0.051738 (0.0367746)	0.019074 (0.0377538)	-0.028811 (0.0310276)	0.028852 (0.036186)
30~99인 규모 [3,816]	-0.030111 (0.0226821)	-0.002426 (0.0404218)	0.030237 (0.043174)	-0.019357 (0.0357836)	0.003344 (0.0417812)
100~299인 규모 [3,384]	0.013016 (0.022687)	0.038152 (0.0405971)	0.063035 (0.0456747)	0.058687* (0.0348233)	0.037596 (0.040849)

() 안은 강건 표준오차를 나타냄

[] 안은 표본의 크기를 나타냄

*p<0.1, **p<0.05, ***p<0.01

<표 9-2> 직종에 따른 건강과 생활 만족도 - 사무 종사자

사무 종사자	작년 대비 건강 상태	건강 유지를 위해 들이는 시간	여가시간 (만족도)	가족 관계 (만족도)	사회적 관계 (만족도)
1~4인 규모 [5,290]	-0.003691 (0.0183568)	-0.029228 (0.031475)	0.020425 (0.0360096)	0.021068 (0.0299978)	-0.002653 (0.0354521)
5~9인 규모 [3,941]	0.016092 (0.0197293)	0.067573 (0.0422482)	0.066117 (0.0449557)	0.035722 (0.0415986)	0.006708 (0.0486944)
10~29인 규모 [4,454]	0.003086 (0.0194374)	-0.018886 (0.0364442)	0.0762634* (0.0443034)	0.042739 (0.034968)	0.022346 (0.0421189)
30~99인 규모 [4,145]	-0.002849 (0.019469)	0.000931 (0.036127)	0.017182 (0.0439893)	0.019238 (0.0336009)	-0.000173 (0.0408901)
100~299인 규모 [3,684]	0.001233 (0.0217656)	0.004404 (0.0433666)	-0.046612 (0.0412221)	-0.031843 (0.0330097)	-0.029857 (0.0412194)

() 안은 강건 표준오차를 나타냄

[] 안은 표본의 크기를 나타냄

*p<0.1, **p<0.05, ***p<0.01

<표 9-3> 직종에 따른 건강과 생활 만족도 - 판매 종사자

판매 종사자	작년 대비 건강 상태	건강 유지를 위해 들이는 시간	여가시간 (만족도)	가족 관계 (만족도)	사회적 관계 (만족도)
1~4인 규모 [2,524]	0.0043668 (0.0295047)	0.1143811** (0.0548835)	-0.1280752** (0.0548114)	0.0054797 (0.0565995)	-0.0409641 (0.057528)
5~9인 규모 [1,826]	0.0778214** (0.0377911)	0.0780459 (0.0585156)	-0.1307938** (0.0648376)	-0.0602214 (0.0639307)	-0.0006154 (0.0606085)
10~29인 규모 [1,483]	0.055903 (0.0352175)	0.1169146* (0.0674125)	-0.1110838* (0.0663938)	-0.0574102 (0.0637213)	-0.0206285 (0.064485)
30~99인 규모 [1,192]	0.0493555 (0.0358041)	0.0624683 (0.086046)	-0.0591272 (0.0731813)	-0.0586482 (0.0668594)	-0.067963 (0.0680574)
100~299인 규모 [972]	0.026416 (0.0371717)	0.1000234 (0.0795632)	-0.0083761 (0.0804466)	-0.0170804 (0.0773134)	-0.0170804 (0.0773134)

() 안은 강건 표준오차를 나타냄

[] 안은 표본의 크기를 나타냄

*p<0.1, **p<0.05, ***p<0.01

<표 9-4> 직종에 따른 건강과 생활 만족도 -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작년 대비 건강 상태	건강 유지를 위해 들어는 시간	여가시간 (만족도)	가족 관계 (만족도)	사회적 관계 (만족도)
1~4인 규모 [2,663]	0.0255687 (0.0309028)	-0.0100233 (0.0524382)	0.0521754 (0.0586677)	-0.0552726 (0.0574629)	-0.097015* (0.0585837)
5~9인 규모 [2,486]	0.0422412 (0.0331322)	-0.0220874 (0.0557146)	0.0914062 (0.0630985)	0.0663924 (0.0561238)	-0.0560891 (0.0591236)
10~29인 규모 [2,146]	0.0368448 (0.0319885)	-0.0287562 (0.0549508)	0.101185 (0.0660729)	-0.0493005 0.0565433	-0.0412393 (0.0589647)
30~99인 규모 [1,591]	0.0045737 (0.0346362)	0.0072718 (0.060668)	0.0374171 (0.0706866)	0.0206209 0.0662879	-0.0798554 (0.0664734)
100~299인 규모 [1,107]	0.0380783 (0.0276437)	-0.0181092 (0.078871)	0.1338859* (0.0782054)	0.0076223 (0.0738957)	0.1074184 (0.0744157)

() 안은 강건 표준오차를 나타냄

[] 안은 표본의 크기를 나타냄

*p<0.1, **p<0.05, ***p<0.01

<표 9-5> 직종에 따른 건강과 생활 만족도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작년 대비 건강 상태	건강 유지를 위해 들어는 시간	여가시간 (만족도)	가족 관계 (만족도)	사회적 관계 (만족도)
1~4인 규모 [2,073]	-0.0027393 (0.0237101)	-0.0088751 (0.0491222)	0.0597102 (0.0557513)	-0.0448079 (0.056587)	-0.095371 (0.0598117)
5~9인 규모 [2,116]	0.0010684 (0.0225003)	0.0642926 (0.0490914)	0.006089 (0.0549185)	-0.0244778 (0.0550874)	-0.007986 (0.0562991)
10~29인 규모 [2,688]	-0.010419 (0.0229957)	0.0892899** (0.040068)	-0.039234 (0.0457432)	-0.0194168 (0.0485749)	-0.0209874 (0.0506086)
30~99인 규모 [3,023]	-0.0318798 (0.0209529)	0.0086914 (0.0381659)	-0.0113904 (0.0426698)	-0.0095741 (0.0431133)	-0.0148844 (0.0476264)
100~299인 규모 [2,637]	-0.0132664 (0.0226256)	0.0831879** (0.0418444)	0.0053196 (0.0419892)	0.0261042 (0.0407274)	0.0340412 (0.0435383)

() 안은 강건 표준오차를 나타냄

[] 안은 표본의 크기를 나타냄

*p<0.1, **p<0.05, ***p<0.01

<표 9-6> 직종에 따른 건강과 생활 만족도 - 단순 노무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작년 대비 건강 상태	건강 유지를 위해 들이는 시간	여가시간 (만족도)	가족 관계 (만족도)	사회적 관계 (만족도)
1~4인 규모 [4,748]	-0.0457924 (0.0349489)	-0.0470558 (0.0712846)	-0.0939138 (0.0599941)	-0.0832586 (0.0599221)	-0.1042597* (0.0614485)
5~9인 규모 [2,328]	-0.0418989 (0.039428)	0.0131768 (0.0799552)	-0.0658163 (0.0634718)	-0.0091618 (0.0698138)	-0.0198965 (0.073098)
10~29인 규모 [1,898]	-0.0159736 (0.0381971)	0.0668348 (0.0796464)	-0.1043459* (0.0632545)	-0.1279425* (0.0695178)	-0.1534552** (0.0758248)
30~99인 규모 [1,270]	-0.03174 (0.0410173)	-0.0033891 (0.0797717)	-0.1402034* (0.0735605)	-0.0919605 (0.0785962)	-0.0707794 (0.0758101)
100~299인 규모 [779]	-0.0378216 (0.0574018)	0.1046258 (0.0967858)	-0.2236644** (0.0952252)	-0.0549651 (0.0842244)	-0.0173629 (0.0822512)

() 안은 강건 표준오차를 나타냄

[] 안은 표본의 크기를 나타냄

*p<0.1, **p<0.05, ***p<0.01

V. 결론

1.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2018년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근로자들의 생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때 학력, 영유아 자녀 양육 여부, 결혼 여부, 성별, 직종에 따라 변화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한국노동패널 15~24차년도에 개인용 및 가정용 자료를 이중차분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해당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 분석에서는 전체 표본에서 모든 대조군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해당 정책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전 분석 이후 건강과 생활 만족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건강 변화 분석을 위한 변수는 주관적 건강 상태와 건강 유지를 위해 할애하는 시간 유무에 대한 더미 변수로 구성되었는데 이때 여성과 판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로 1년 전 대비 현재 건강 상태가 개선됨을 볼 수 있었다. 건강 유지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는 저학력, 영유아 자녀가 없는 경우, 기혼, 모든 성별, 판매직 및 장치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서 증가했다.

다음으로는 생활 만족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생활 만족도는 크게 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 사회적 친분 관계에 대한 만족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고학력, 영유아 자녀가 없는 경우, 전문직, 사무직, 기능직에 종사하는 경우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여가 만족도가 상승하였으나 반대로 판매직 및 단순 노무직 종사자의 여가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하락했다. 가족 관계 만족도의 경우 남성, 전문직 종사 근로자에서 상승하였는데 특히 영유아 자녀 유무와는 상관 없이 모두 가족 관계 만족도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친분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유일하게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고 저학력, 기능직 및 단순 노무직 종사자의 만족도는 하락하였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는 데에 있다. 충분한 휴식은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져 건전한 국가 경제 발전으로도 이어진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건강 유지를 위해 들이는 시간과 여가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상승한 집단이 다수 존재한다. 본 연구는 근로시간 단축이 건강과 여가를 중심으로 근로자들의 생활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고 근로자들의 건강 유지를 위한 시간 투자와 여가 및 가족 관계 만족에 있어서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지가 필수적임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의 출생률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8년째 OECD 198개국 중 198위를 기록하고 있다.¹¹⁾ 본연구의 결과를 보면 미혼보다는 기혼 근로자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건강 유지를 위해 활동하는 시간이 증가하였고¹²⁾ 가족 관계 만족도도 영유아 양육과 무관하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 관계 만족도에 있어서 남성은 유의미하게 상승하였으나 여성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음에도 그 시간에 여성이 추가적인 가사 노동에 투입되었다는 예측을 할 수 있다. 또한 여가 만족에 있어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결과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얻은 추가적인 시간이 육아에 들어간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보전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 및 생활 만족도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상한제 유지와 더불어 육아 및 가사 부담을 덜어주는 법적 제도 및 정책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2. 향후 연구 방향 제시

본 연구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특성별 임금 근로자의 건강 및 생활 만족도 측면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끝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포함한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관련된 연구를 향후 진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임금 근로자의 직종별 분석 결과 중 단순 노무 종사자의 경우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영향

11) KOSIS (인구동향조사, 시도/인구동태진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H&conn_path=I2 (2022.09.15.)

12) 기혼의 경우 가족 관계 만족도의 결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영유아 양육 여부가 기혼 응답자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 관계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상승했다고 판단함.

이 다른 직종과 사뭇 다르게 나타났다. 다른 직종의 경우 건강 및 생활 만족도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에 유의한 영향이 없거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였다. 반면 단순 노무 종사자의 생활 만족도는 정책 시행으로 인해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단순 노무 종사자의 임금수준이 타 직종에 비해 낮고 근로시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책 시행이 임금 감소 효과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단순 노무 종사자들의 실질임금 혹은 소득에 관한 만족도가 변화했는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시너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은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하여 시행되었고 정부는 점차적으로 시행 대상을 넓히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2020년 계도기간을 거쳐 2021년 1월과 7월에 각각 50인 이상 사업체와 5인 이상 사업체에 대하여 정책을 확대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 7월을 정책 시행 시기로, 300인 이상 사업체를 정책 시행 대상으로 둔 채 하나의 시점 및 그룹에 대한 이중차분 분석을 시행하였으나 위와 같은 정책 시행 과정을 고려한다면 다시점 이중차분 모형을 이용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후 2021년 이후 데이터가 축적될 것을 감안하면 진화된 방법론을 통해 정책의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 분석 시에 사업체의 규모를 기준으로 총 다섯 개의 대조군을 생성하여 처치군과 비교했다. 서로 다른 다섯 개의 대조군 중 각 종속 변수별로 처치군과 가장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대조군은 상이할 것이다. 다섯 개의 대조군에 대한 최적의 가중치를 할당하여 특정 변수에 대하여 처치군과 가장 유사한 특징을 갖는 합성대조군(synthetic control group)을 생성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 가상의 대조군을 활용하여 이중차분 분석을 진행한다면 보다 강건한 분석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대일(2021),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고용 및 근로시간의 변화」, 『노동경제논집』 44(3): 27-64.
- 신한열·정완교(2019), 「노동 시간의 단축이 건강 행태와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5(1): 53-75.
- 심재선·김호현(2020),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DID)을 활용한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의 고용 및 노동생산성 영향 분석」, 『한국생산성학회』 34(4): 197-224.
- 오선정(2016),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생활 만족도」, 『노동리뷰』 134(-): 54-66.
- 유혜림(2018), 「근로시간이 주관적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 내생적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18(1): 71-102.
- 이승협·손애리(2020),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균형에 대한 남녀노동자의 경험과 정책과제」, 『월간 한국노총』 2020(12): 1-154.
- 이진우·금종예(2021),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가구 내 부부의 노동시간 격차에 미친 영향」, 『정부학연구』 27(1): 219-247.
- 최승묵(2020), 「주 52시간 상한제 실시 여부에 따른 여가 활동 참여 실태 및 만족도 분석」, 『한국관광학회』 32(4): 389-406.
- 최태월·임상호(2021), 「직장인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활변화와 여가만족도에 관한 연구」, 『산업진흥원』 6(2): 47-53.
- Pega, F. et al.(2021). “Global, regional, and national burdens of ischemic heart disease and stroke attributable to exposure to long working hours for 194 countries, 2000 - 2016: A systematic analysis from the WHO/ILO joint estimates of the work-related burden of disease and injury”. *Environment International*. Vol.154. 106595. Retrieved from <https://doi.org/10.1016/j.envint.2021.106595>

